

전남 합계출산율 2025년 2분기 1.04명 전국 1위

전라남도는 2024년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25년 2분기 합계출산율도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입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8천225명으로 전년(7천828명)보다 397명(5.1%)이 늘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군 중에서는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하고 강진, 장성, 함평, 고흥 등 무려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천317명으로 전년(23만 28명)보다 8천289명(3.6%)이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출생률 증가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발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2025년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4천3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천73명)보다 244명(6%)이 증가하고 2분기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전년(1.0명)보다 0.04명 늘었다.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정책수혜자·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지자체·지역사회와



2024년 1.03명... 2년 연속 최고 이어 유일하게 1.0명 넘어

출생기본수당·체계적 난임치료 등 임신·출산 통합지원 주요

함께하는 혁신적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출생기본수당(20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하는 한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확대, 연령·횟수 등 제한없는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난

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국 최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도 추가 지원으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보가 분산된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더 혁신적이고 더 든든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전남 소상공인 10명 중 3명 "연매출 2000만원 안돼" 소상공인 지원 여부 따라 생존율 큰 폭 격차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연매출이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0% 안팎이었으며 정부 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라 생존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매출액 규모 구간별 분포는 2000만 원 미만이 제주(34.0%), 전남(30.0%), 전북(30.0%), 광주(29.5%) 등의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지역은 2000만~5000만 원 미만 각각 21.4%·22.2%, 5000~1억 원 미만 16.3%·15.1%, 10억 원 이상 2.9%·2.9%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은 전남(72.0%), 제주(71.4%), 광주(68.0%), 전북(65.3%)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제주(40.3%), 전남(40.2%), 광주(37.8%), 전북(37.8%)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소상공인 60% 이상이 5년을 버티기 어려운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달랐다.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지원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전남 62.5%, 광주 59.1%인 반면, 미지원 사업체는 전남 31.6%, 광주 28.2%로 30%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남(26만3000 개), 전북(26만1000 개), 광주(19만4000 개), 제주(12만1000 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남(8만8400 명), 전북(8만7100 명), 광주(7만2000명), 제주(4만2500 명) 등이다.

2023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광주 1억6600만원, 전남 1억658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 창업률은 전북(12.3%), 광주(12.1%), 전남(11.5%), 제주(11.2%) 순으로 높았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폐업률은 광주(11.7%), 제주(11.1%), 전북(10.5%), 전남(10.3%) 순이다. /임재일 기자

전남도, 농업 6차산업화 위해 맞춤형 설계코칭 최대 16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성장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설계코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설계코칭'은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을 겪는 경영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개소당 사업비 160만 원(자부담 40만 원 포함)으로 최대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설계코칭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이나 경영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전문가가 1개월 동안 최대 4회 현장을 찾아가 진행한다. 전남도는 경영체를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케팅, 수출, 제품개발, 품질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57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총 68회, 28개소의 코칭을 진행했다. 설계코칭을 받은 농업회

사범인 식객갯김치(주)는 갯시래기 상품화를 통한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농업회사법인 (주)축령농원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에 컨설팅을 받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현장코칭에 참여했던 정만식 명하쪽빛마을협동조합 대표는 "마을 운영과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설계코칭을 통해 마을공동체 발전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 사용법을 배웠다"며 설계코칭 사업에 큰 만족도를 표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체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인증경영체와 함께 신규 농업인 유입을 통해 지역의 구조적 문제 가 점차 개선돼 농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교육과 멘토링 등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을 펼쳐 총 433개소(2025년 7월 현재)의 전국 최대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를 보유하고 있다.

/우인 기자

전남도, 청년마을 비즈니스 모델 모색

해커톤 행사서 로컬청년전문가 컨설팅으로 성장전략 구체화

전라남도는 청년마을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2025 전남형 청년마을 해커톤 행사를 26일까지 2일간 목포 관창마을에서 개최했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일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마을, 시군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청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마을의 비전과 구체적 방향성을 정해 마을의 지속 성장과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에 이어 9월 2-3일 2차례 진행되며,

로컬 청년 전문가의 컨설팅과 팀별 발표를 통해 각 마을의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중앙부처 멘토단,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출신의 전문가단을 컨설팅단으로 구성해 2025년 6월부터 2개월간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매달 1대1 컨설팅을 통해 과제를 지속 점검한 후 연말에 '청년마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형 청년마을이 행안부형 청년마을, 강한 소상공인, 사회적·마을 기업으로 성장할 출발점 마련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해커톤을 시작으로 청년마을이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유슬 청년마을 대표는



"해커톤을 통해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도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과 함께 창업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돌과구와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해커톤을 계기로 청년이 자신있게 도전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이 모여 꿈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도록 하기 위해 '전남형 청년마을' 17개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460개의 청년단체에 4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